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 및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이은숙** 이경님***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Happiness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Mediating Effects of Job Stress and Teaching Efficacy

Lee, Eun Suk Lee, Kyung Nim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행복감에 대한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 및 교사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 및 정서지능과 행복감 간의 경로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교사 246명이며, 수집된 자료는 일원변량분석,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연령, 학력, 경력, 소득,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정서지능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며 가장 큰 인과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써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은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며, 직무스트레스는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요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행복감 간의 경로에서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어 이는 정서지능은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게 하고 교사효능감은 높이게 하여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행복감의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 정서지능,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행복감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2014년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 제 1저자: 허비슬레학원 원장(E-mail : les6355@hanmail.net)

*** 교신저자: 동아대학교 이동가족학과 교수(E-mail : knlee@dau.ac.kr)

I. 서론

최근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더불어 저 출산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공보육 정책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급격한 확충 등 영유아교육기관의 양적인 증가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2013년의 통계에 의하여 영유아의 유아교육기관의 이용율을 살펴보면 0세에서 만 2세의 영아의 경우 총 1,382,218명 중 모두 877,684명이, 만 3세에서 6세 유아의 경우 총 1,387,037명 중 어린이집 재원 수 602,176명(43.44%) 유치원 재원 수 654,821명(47.21%) 모두 1,256,977명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 2013 통계). 이로써 영아의 경우 63.49%, 유아의 경우 90.62%가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오늘날 영유아 교육이 점점 보편화 되고 있으며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아교육의 양적인 증가는 크게 발전하고 있음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강이슬, 김민경, 2011), 질에 대한 개선을 위한 관심과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며 인적 자원인 교사의 역할과 자질이라는데 일치되고 있다(황해익, 탁정화, 홍성희, 2013). 더불어 최근에는 영유아교사가 역량을 발휘하고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전문성이나 지적 능력 보다는 교사의 긍정적인 내적 특성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행복감이 강조되고 있다(이경민, 최윤정, 이경애, 2012).

행복감이란 가장 보편적인 긍정적 정서로, 주관적 안녕감(well-being)과 만족(contentment)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Webster & Webster, 1963, 이훈구, 1997, 재인용), 자신의 일에 만족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구현할 때 가질 수 있다(권석만, 2008). 행복한 개인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직업성취에 대한 의욕이 높고 삶에 열정적이다(Seligman, 2004; Wilson, 1967, 이수정, 안신호, 2005, 재인용). 영유아교사가 생활에서 긍정적 정서를 가지며 만족하여 행복감이 높을 때, 교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므로(황해익 등, 2013)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교수행동을 보이며 교육 및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면 유아교사의 행복감은 교직에 대한 열정,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시연, 2014), 교직헌신도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고(이미란, 2010) 유아교사의 행복과 교사평가 및 원장평가의 역할수행능력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보고되었다(이경민 등, 2012). 또한 교사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황해익, 2013), 교사-영아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모연례, 2013; 이성아, 2014). 이에 따라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의 중요성은 최근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 중 먼저 일반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면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경력이나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기혼이 미혼보다, 30대가 2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명자, 최혜순, 2014). 또한 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연령, 경력,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력과 근무시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김시연, 2014) 학력과 결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경력과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다(곽희경, 2011). 또한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은 기혼인 교사가 미혼인 교사보다 높았으나 학력, 연령, 경력 등에 따라 일부 하위요인을 제외하고 총점에서 차이가 없었으며(이미란, 2010), 보육교사의 심리적 행복감은 연령, 학력, 경력, 결혼여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정민정, 김유진, 2009). 이처럼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행복감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개인의 심리적 특성 변인과 환경적 변인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함이 요구된다(최진원, 2001; 황해익 등, 2013).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예측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 변인 중 정서지능은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평가하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서를 조절하고 관리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Mayer & Salovey, 1997). 정서지능은 부정적 정서는 최소화 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높이도록 하므로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행동과 적응을 위한 결정적인 능력이다(Goleman, 1995, 이수미, 조경자, 김혜리, 2009, 재인용). 정서지능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직무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보이며 삶의 만족도도 높으므로(Goleman, 2000) 정서지능은 교사의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가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지능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수미 등, 2009)에서 정서인식, 동기화, 공감, 정서조절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또한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입입, 사고촉진, 정서활용, 정서조절의 정서지능이 높은 청소년이 삶의 만족감, 안녕감, 행복감을 포함하는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김현준, 2007). 이와 같은 정서지능과 삶의 만족도 혹은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유추된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 의하여 교사효능감은 영유아교사의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연경, 장석경, 이정아, 2013; 곽희경, 2011; 배성희, 2009; 황해익 등, 2013). 교사효능감은 교사가 자신의 업무능력에 관련된 믿음을 말하며 구체적 교육장면에서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하여 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97, 김경철, 최인숙, 홍정선, 2007, 재인용).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효율적으로 교수행동을 수행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개인적 교사효능감과 교사가 유아의 성취 및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 기대인 일반적 교사효능감으로 구성된다(신혜영, 2005; Riggs, 1988).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자신감과 열정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교사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므로(Glickman & Tamashiro, 1982) 행복감도 높으리라 보고 많은 연구들은 이를 검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 교사의 개인 및 일반적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황해익 등, 2013),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행복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보고되었고(배성희, 2009)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임수진, 여은진, 이해원, 2013). 이와 같은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행복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의 일치는 교사효능감이 행복감의 중요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요인이라면 직무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신현정, 박진성, 2010; 정민정, 김유진, 2009). 직무스트레스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정신적 피로와 압박감, 긴장, 불안, 좌절감과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동반한다(권정윤, 2010; 정민정, 김유진, 2009).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각하는 원장지도력 및 행정지원 부족, 업무과부하, 동료 및 학부모와의 갈등, 원아들과의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포함한다.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며(김연아, 김정은, 2012),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자아존중감이나 심리적 안녕을 위협하므로(Moracco & McFadden, 1980, 정민정, 김유진, 2009, 재인용) 생활의 질이나 만족도를 저하하게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면 보육교사의 심리적 행복감에 직무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정민정, 김유진, 2009), 유사하게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무스트레스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측 변인으로 밝혀졌고(신현정, 박진성, 2010), 교사의 낮은 직무 만족이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임수진 등, 2013; 황해익 등, 2013). 이로써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에서 확인된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은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먼저 정서지능은 부정적 정서는 최소화 하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서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므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한다. 즉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은 직무스트레스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이경님, 강진숙, 2014),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지능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정서인식의 정서지능이 직무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송미선, 김소양, 2009). 또한 정서지능은 교사의 교사효능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 간의 정적인 관계가 보고되었으며(엄세진, 2010), 정서지능이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님, 강진숙, 2014).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정서지능, 교사효능감, 직무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정서지능은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하여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의 인과적 관련성을 가정 할 수 있다. 즉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정서지능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 또한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 주로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정서지능, 교사효능감, 직무스트레스가 주는 영향을 각각 살펴본 연구는 있었으나, 이들 변인들을 모두 함께 고려하거나 정서지능, 교사효능감, 직무스트레스가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힌 연구는 없어 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토대로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행복감에 대하여 정서지능, 교사

효능감, 직무스트레스가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대하여 어떠한 변인들이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교사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의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학력, 경력, 소득, 결혼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 및 교사효능감은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2-1.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 및 교사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 2-2.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정서지능의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한 간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 2-3.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정서지능의 교사효능감을 매개로한 간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김해시 및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영유아교사 246명이다. 이들 교사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의 연령은 30-39세 101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21-29세가 93명(37.8%) 40세 이상 52명(21.1%) 학력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113명(46%)으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 졸업 90명(31.8%) 보육교사교육원 졸업 43명(17.5%)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력을 살펴보면 3-5년 65명(26.4%)이 가장 많았으며 6-10년 미만 62명(25.2%) 1-3년 미만 59명(24.0%) 10년 이상 31명(12.6%) 1년 미만 29명(11.8%)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결혼 여부를 살펴보면 미혼 교사 130명(52.83%), 기혼 교사 116명(47.2%)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담당아동 연령은 0세 33명(13.4%) 만 1세 52명(21.1%) 만 2세 66명(26.8%) 만 3세 39명(15.9%) 만 4세 30명(12.2%) 만 5세 26명(10.6%)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행복감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ills와 Argyle(2002)의 옥스퍼드 행복질문지(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OHQ)를 번안한 최요원(2002)의 행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정서의 정도, 삶의 만족도,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을 비롯한 부정적 정서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있으며 모두 29문항이다. 문항의 예를들면 ‘나는 삶이 매우 보람 있다고 느낀다.’ ‘나는 세상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매우 행복하다.’ 등이다. Likert식 5점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2) 정서지능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Law와 Wong(2004)가 개발한 EIS(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변안한 노혜미(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정서인식, 타인정서인식, 자기정서조절, 타인정서조절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요인에 각각 4개 문항씩 모두 16문항이다. 문항의 예를들면 ‘자신의 정서를 이해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정서를 잘 파악 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등이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기정서인식 .69, 타인정서인식 .85, 자기정서조절 .72, 타인정서조절 .82, 전체 .91이었다.

3) 교사효능감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iggs와 Enochs(1990)가 개발한 과학 교수효능감 검사(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s Instruments: STEBI)를 수정, 보완한 서주희(201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반적 교사효능감과 개인적 교사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교사효능감 9문항, 개인적 교사효능감 13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일반적 효능감의 경우 ‘유아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는 그 활동에 대한 교사의 교수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개인적 교사효능감의 경우 ‘나는 유아를 지도 하는데 있어 유능하다.’ 등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부정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일반적 교사효능감 .81, 개인적 교사효능감 .60, 전체 .74이었다.

4) 직무스트레스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혜영(2005)과 구은미(2004)의 교사용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참조하고 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지원 부족 11문항, 업무과부하 8문항, 동료관계 5문항, 학부모 관계 3문항, 원아들과의 관계 5문항 모두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지원부족의 경우 ‘우리 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방식은 일관성이 없다.’ 업무과부하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행사가 너무 많다.’ 동료 관계의 경우 ‘교직원들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학부모 관계의 경우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지나치게 관여를 한다.’ 원아들과의 관계의 경우 ‘부적응 유아(영아)를 어떻게 지도해야할지 모르겠다.’ 등이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영역의 직무스트레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원장지도력 및 행정 지원부족 .80, 업무과부하 .89, 동료관계 .88, 학부모 관계 .88, 원아들과의 관계 .76, 전체 .93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2013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어린이집 한 곳을 선정하여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측정도구의 문항 이해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으며 절차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2013년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김해시 및 창원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영유아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250부 중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246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먼저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척도의 신뢰도를 검토한 후 연구문제 1은 일원변량분석 및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모형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고,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합지수로 표준카이 자승치, GFI, RMR, AGFI, RMSEA를 증분적합지수로 TLI, NFI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지능과 소진 간의 경로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나타난 경우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의 개별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영유아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연령, 학력, 경력, 소득 및 결혼여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변량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영유아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구분	<i>N</i>	<i>M</i>	<i>SD</i>	<i>F(t)</i>	<i>p</i>
연령	21 ~ 29세	93	3.503	.419	1.349	.261
	30 ~ 39세	101	3.525	.409		
	40세 이상	52	3.614	.327		
학력	보육교사교육원	43	3.517	.378	.381	.684
	2~3년제 대학졸업	113	3.530	.364		
	4년제	90	3.564	.436		
	대학교졸업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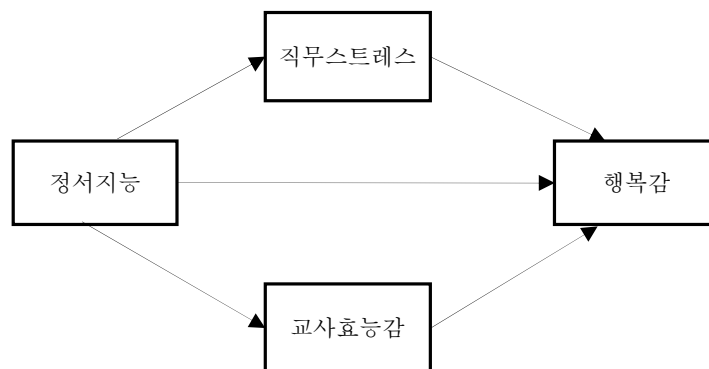
경력	3년미만	88	3.489	.402	2.233	.109
	3~5년	65	3.501	.413		
	6년이상	93	3.603	.378		
소득	150만원미만	111	3.490	.351	1.729	.180
	151만-200만원미만	92	3.552	.420		
	200만원이상	43	3.618	.398		
결혼여부	기혼	116	3.538	.428	.078	.938
	미혼	130	3.534	.371		

먼저 <표 1>에 의하여 행복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3.489~3.618의 범위를 보여 영유아 교사의 행복감은 대체로 중간 점수에서 조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 1>에 의하면,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영유아교사의 연령($F=1.349, p>.05$), 학력($F=.381, p>.05$), 경력($F=2.233, p>.05$), 소득($F=1.729, p>.05$) 및 결혼여부($t=.078, 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은 교사의 연령, 학력, 경력, 소득, 결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 및 교사효능감의 직·간접적 영향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 및 교사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의하면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 및 교사효능감은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지능은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도 미침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1) 기초분석;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먼저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 직무스트레스 및 교사효능감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영유아교사의 행복감과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u>정서지능</u>												
1. 자기정서인식	1											
2. 타인정서인식	.62**	1										
3. 자기정서조절	.65**	.59**	1									
4. 타인정서조절	.59**	.59**	.61**	1								
<u>교사효능감</u>												
5. 일반적 교사효능감	.36**	.34**	.34**	.33**	1							
6. 개인적 교사효능감	.41**	.40**	.53**	.43**	.22**	1						
<u>직무스트레스</u>												
7. 지도력 및 행정지원	-.27**	-.17*	-.28**	-.27**	-.19*	-.24*	1					
8. 업무과부하	-.12	-.06	-.14*	-.23**	-.08	-.06	.52**	1				
9. 동료와의 관계	-.22**	-.19*	-.25**	-.17*	-.12	-.19*	.44**	.46**	1			
10. 학부모와의 관계	-.17*	-.15*	-.16*	-.20**	-.09	-.13*	.43**	.51**	.50**	1		
11. 원아들과의 관계	-.07	-.09	-.19**	-.20**	-.11	-.24**	.46**	.49**	.37**	.51**	1	
12. 행복감	.56**	.51**	.69**	.52**	.37**	.47**	-.36**	-.27**	-.39**	-.34**	-.29**	1
<i>M</i>	3.68	3.61	3.64	3.48	3.60	3.31	2.40	2.92	2.20	2.66	2.59	3.54
<i>(SD)</i>	(.47)	(.53)	(.51)	(.62)	(.46)	(.34)	(.50)	(.70)	(.69)	(.84)	(.59)	(.40)

* $p < .05$, ** $p < .01$, *** $p < .001$

<표 2>에 의하면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자기정서인식($r=.56, p<.001$), 타인정서인식($r=.51, p<.001$), 자기정서조절($r=.69, p<.001$), 타인정서조절($r=.52, p<.001$)의 정서지능과 일반 교사효능감($r=.37, p<.001$), 개인 교사효능감($r=.47,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원장지도력과 행정지원부족($r=-.36, p<.001$), 업무과부하($r=-.27, p<.001$), 동료와의 관계($r=-.39, p<.001$), 학부모와의 관계($r=-.34, p<.001$), 원아들과의 관계($r=-.29, p<.001$)의 직무스트레스와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자기정서인식, 타인정서인식, 자기정서조절, 타인정서조절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일반적 교사효능감과 개인적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원장지도력과 행정지원부족, 업무과부하, 동료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원아들과의 관계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 2>에 의하여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 및 교사효능감의 직·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기 전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65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 및 교사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 및 교사 효능감이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경로모형이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최적의 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표준카이자승치 .65, GFI .999, RMR .002, AGFI .987, RMSEA .000, TLI 1.007, NFI .998로 Hu와 Bentler(1999)의 구조모형 적합도 권장지수에 따라 모든 값이 적합기준을 충족시키므로 경로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표 3> 경로모형의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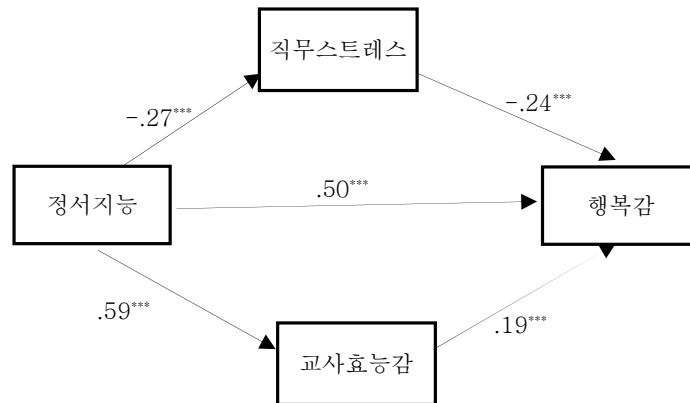
	χ^2 / df	GFI	RMR	AGFI	RMSEA	TLI	NFI
적합기준	<3	>.90	<.05	>.90	<.08	>.90	>.90
적합지수	.65	.999	.002	.987	.000	1.007	.998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경로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4>와 같으며 이 중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한 최종 경로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4>경로모형의 경로계수

변인간 경로	B	β	S.E	C.R
→직무스트레스	-.30	-.27	.07	-4.45***
정서지능 →교사효능감	.38	.59	.03	11.49***
→행복감	.45	.50	.05	9.00***
직무스트레스 →행복감	-.19	-.24	.04	-5.26***
교사효능감 →행복감	.26	.19	.08	3.49***

*** $p < .001$



[그림 2] 최종 경로모형

[그림 2]에 의하면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정서지능은 직접적인 영향($\beta=.50, p<.001$)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beta=-.27, p<.001$)와 교사효능감($\beta=.59, p<.001$)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은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직무스트레스는 낮게 하고 교사효능감은 높게 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직무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영향($\beta = .24,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교사효능감은 직접적인 영향($\beta = .19,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은 행복감 증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종 경로모형의 다중상관자승치를 살펴본 결과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은 53.4%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2]에서 정서지능이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을 통하여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에서 간접적인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정서지능이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에서 간접효과는 .18($p < .05$)로써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교사의 정서지능은 직무스트레스는 감소하게 하고 교사효능감은 증진하게 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의 개별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Z = 2.85(p < .01)$, 교사효능감의 경우 $Z = 3.41(p < .001)$ 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서지능이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를 [그림 2]에 비추어볼 때 정서지능의 직접적인 영향은 여전히 유의하여 정서지능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부분 매개효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서지능,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정서지능,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의 순으로 직접효과와 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은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며, 이 중 정서지능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5> 영유아교사의 행복감과 관련 변인의 직·간접적 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정서지능 → 행복감	.50*	.18*	.68*
직무스트레스 → 행복감	-.24*	-	-.24*
교사효능감 → 행복감	.19*	-	.19*
정서지능 → 직무스트레스	-.27*	-	-.27*
정서지능 → 교사효능감	.59*	-	.59*

* $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행복감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행복감에 대한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교사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의 기초자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연령, 학력, 경력, 소득 및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행복감이 연령, 결혼 여부, 학력,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정민정, 김유진, 2009), 유아교사의 교사학력, 교사경력에 따라 행복감의 전체 총점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박성혜, 박은주, 2014)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에 의하면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행복감의 차이는 개인 외적인 요소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연령, 학력, 경력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이미란, 2010), 연령, 경력, 결혼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력과 근무시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는 연구(김시연, 2014)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으며 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연령, 경력,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모연례, 2013)와는 거의 일치하지 않고 있어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연령, 학력, 경력, 결혼 여부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교사의 행복감의 차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심도 있는 접근에 의한 자료수집 및 분석에 의하여 일관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정서지능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정서지능은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는 적게 지각하고 교사효능감은 높게 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교사의 정서지능이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서지능이 높은 개인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이수미 등, 2009)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사고촉진, 정서활용, 정서조절의 정서지능이 높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 안녕감, 행복감을 포함하는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연구(김현준, 2007)와 일치하였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정서를 조절하고 관리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서능력이 높은 교사가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이 교사효능감을 통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키게 하는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 검증과 Sobel 검증으로 확인한 결과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교사의 정서지능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교사의 정서지능이 교사효능감을 증진하게 하여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정서지능이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경님, 강진숙, 2014), 정서지능이 교사의 효율적인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Leitch & Day, 2001), 교사효능감과 행복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임수진 등, 2013; 황해익 등, 2013)에 의하여 지지된다.

또한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은 직무스트레스를 통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 검증과 Sobel 검증으로 확인한 결과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교사의 정서지능과 행복감 간의 경로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로써 교사의 정서지능은 직무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게 하여 행복감을 높이는 간접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경남, 강진숙, 2014), 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권정윤, 2010)와 직무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민정, 김유진, 2009)에 의하여 지지된다.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은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정서지능은 부정적인 정서는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도록 하며 직무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생활의 만족을 높여 행복감이 증진하게 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서지능의 직접적인 영향은 여전히 유효하여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부분 매개효과임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하면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은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사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직무스트레스는 적게 지각하도록 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영향도 확인되어 인과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지능이 영유아교사의 행복감 증진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정서지능을 증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교사효능감은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교사효능감은 행복감 증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교사효능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 연구(임수진 등, 2013),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배성희, 2009; 황해익 등, 2013)와 일치하였으며 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철규, 2010)와도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로써 교사의 교사효능감과 행복감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업무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수행동이 영유아의 성취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때, 열정으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만족감과 함께 행복감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효능감은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직접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교사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사가 자신의 업무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교수행동에 대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런데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직무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민정, 김유진, 2009)와 일치하였으며 낮은 직무만족이 교사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임수진 등, 2013; 황해익 등, 2013)와도 유사하였다. 이로써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행복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교사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신적 피로감, 긴장,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동반하는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수행에 대한 압박감, 부담감을 가중시키며, 열정과 만족감을 저하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여 행복감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나 방안 및 교사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즉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원인, 예를 들어 원장, 교사, 학부모를 비롯한 대인관계, 원아들의 지도, 과도한 행정 업무, 시설 및 교육 환경 등의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나 방안을 강구함이 교사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외적인 지원과 더불어 교사 스스로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연령, 학력, 경력, 소득, 결혼여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의 경우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이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에서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정서지능은 가장 큰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나 가장 큰 인과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은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며, 직무스트레스는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은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게 하고 교사효능감은 높이게 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행복감의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정서지능, 교사효능감, 직무스트레스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직무환경,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등의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들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함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교사의 행복감과 관련 변인에 대하여 질문지를 통한 교사의 자기보고에 의존한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원장보고, 동료보고 등 다각적인 측정이 보완되어야 하며, 교사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 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메카니즘을 확인함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사의 행복감에 정서지능, 교사효능감, 직무스트레스가 어떠한 인과적 관계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강이슬, 김민경 (2011). 영아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325-352.
- 고연경, 장석경, 이정아 (2013). 예비 유아교사의 효능감과 인성 및 행복감 간의 관계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2(1), 19-34
- 곽희경 (2011). 유아교사의 행복감 및 자아정체감과 교사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 전 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구은미 (2004). 보육프로그램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관련변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정윤 (2010). 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정서노동 및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0(6), 269-289.
- 김경철, 최인숙, 홍정선 (2007). 어린이집의 전문성 지원환경과 교사효능감과 관계. **열린유아교육학회지**, 12(4), 115-135
- 김시연 (2014). 유아교사의 행복감, 교직에 대한 열정,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의 구조분석.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아, 김정은 (2012). 영아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1), 105-121
- 김철규 (2010). 초등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 및 주관적 삶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준 (2007).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사회지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혜미 (2005). 정서노동 장면에서 정서상태, 정서지능이 정서노동 전략과 직무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모연례 (2013).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혜, 박은주 (2014). 유아교사의 교직적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8(6), 165-190.
- 배성희 (2009). 보육교사의 행복이 교사의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학연구**, 22, 25-44
- 서주희 (201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미선, 김소양 (2009).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4), 99-129
- 신현정, 박진성 (2010).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 탐색연구: 직무스트레스와 조직효과성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4(2), 147-170.
- 신혜영 (2005).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이 교사행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엄세진 (2010). 보육교사의 SOC 책략과 정서지능, 교사효능감과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62, 97-123.
- 이경님, 강진숙 (2014).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지능 및 교사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2), 93-112.
- 이경민, 최윤정, 이경애 (2012). 유아교사의 행복과 역할수행능력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2(6), 509-523
- 이미란 (2010). 영유아교사의 행복감과 교사현신의 관계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아 (2014). 영아교사의 행복감과 교사-영아 상호작용과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미, 조정자, 황혜리 (2009).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간 발달연구**, 16(3), 131-147.
- 이수정, 안신호 (2005).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관한 연구 개관. **심리과학연구**, 4, 123-143.
- 이훈구 (1997). 한국인의 긍정적 정서. **심리과학**, 6(2), 45-60.
- 임수진, 여은진, 이해원 (2013). 영유아 교사의 직무만족, 교사효능감, 조직몰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3(3), 301-318.
- 정명자, 최혜순 (2014). 보육교사의 윤리의식과 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8, 21-39.
- 정민정, 김유진 (2009).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8(1), 65-74
- 최요원 (2002). 정서인식이 행복경험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진원 (2001). 아동의 심리적 복지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행정자치부 (2013). 주민등록 인구통계.
- 황혜익 (2013).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교사효능감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12(2), 157-180.
- 황혜익, 탁정화, 홍성희 (2013). 유치원 교사의 회복탄력성,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7(3), 411-432.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W. H. Freeman and Company.
- Glickman, C. D., & Tamashiro, R. T. (1982). A comparison of first year, fifth year, and former teachers on efficacy, ego development and problem solv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19(4), 558-562.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Books.
- Goleman, D. (2000). Emotional intelligence. In B. Sadock & Sadock (Eds.),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7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Hills, P. & Argyle, H. (2002).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1073-1082.
- Hu L. T.,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al Modelling*, 6, 1-55.
- Law, K. S., & Wong, C. (2004). The construct and criterion validity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ts potential utility for management stu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9, 483-496.
- Leitch, R. & Day, C. (2001). Reflective process in action: Mapping personal and professional contexts for learning and change. *Journal of In-Service Education*, 27(2), 237-259.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pp. 3-31). NY: Basic Books.
- Moracco, J., & McFadden, H. (1980). Counselors role in reducing teacher stress. Unpublished research report. Auburn University.

- Riggs, I. M. (1988). The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teacher's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 Riggs, I. M., & Enochs, L. G. (1990).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teacher's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cience Education*, 74(6), 625-637.
- Seligman, M. E. P. (2004). *Authentic happiness*. NY: Free Press.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Webster, C & Webster, C (1963). *Webster's seventh new college dictionary*, Springfield MS: G and C Merriam Co.
- Wilson, W. R.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 294-306.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teaching efficacy and job stress on happiness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Data were collected from 246 early childhood teachers. To collect the data, emotional intelligence, teaching efficacy, job stress, and happiness instruments were used. All research variables were measur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with one-way ANOVA,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pathway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eachers' happiness had no difference by demographic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had a direct effect and an indirect effect through teaching efficacy and job stress on happiness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job stress had a direct effect on happiness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Additionally, emotional intelligence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Teaching efficacy and job stress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job stress, teaching efficacy, happiness*

논문투고 2015. 02. 12.
수정원고접수 2015. 03. 30.
최종게재결정 2015. 04. 09.